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트 1]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관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 바이: 전혀.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막막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대화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며, ㉡은 화자가 도달해야 할 구체적 목적지이다.
- ② ㉠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자기 완성의 공간이며, ㉡은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은둔의 공간이다.
- ③ ㉠은 사방으로 트여 있으나 갈 곳이 없는 역설적 공간이며, ㉡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긴 관조적 태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목적 지향적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방랑을 끝내고 정착에 성공했음을 상징하는 종결의 공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소월의 활동기인 1920년대는 가혹한 식민 지배로 인해 수많은 유랑민이 발생하던 시기로, 그의 시 속 「길」은 고향을 상실한 민족의 비극적 현실과 정처 없는 방랑을 상징한다. 반면, 박목월의 「나그네」가 발표된 시기는 일제 말기의 암흑기로, 직접적인 저항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인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모색했다. 여기서 '나그네'는 현실의 고통을 초월하여 자연의 섭리에 동화되려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 ① (가)에서 '나그네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은, 당대 일제 강점기 유랑민들이 처했던 삶의 애환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기러기가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비극적 상황과 대비되어,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부각하겠군.
- ③ (나)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길을 걷는 화자의 모습은, 유랑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의 '술 익는 마을'은 유랑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로, 화자가 방랑을 끝내고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화한 공간이겠군.
- ⑤ (가)가 현실의 상실감을 '어디로 갈까'라는 탄식으로 드러냈다면, (나)는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미적으로 승화시키고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트 2]

(가)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  
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어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던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①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 여래: 부처를 일컫는 호칭.

\* 관공: 중국 삼국 시대의 장수인 관우를 높여 이르는 말.

(나)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뉘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 자무스[佳木斯]: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

\* 빨가: 폴카(polka). 보헤미아 지방의 산뜻한 무곡(舞曲).

1. (가), (나)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물음에 대상이 답하는 문답 구조를 통해 화자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유랑하는 민중들이 공유하는 고립과 비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외양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영탄적 어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향과 가족을 잃은 화자의 절망감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백석의 「고향」에서 화자는 타향에서 병을 얻어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다. ‘의원’은 처음에는 ‘관공’과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낯선 풍모를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그가 고향의 인연과 연결된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화자는 그에게서 ‘부모 형제’와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은 낯선 타인이 고향이라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매개로 가족과 같은 존재로 치환되는 회복의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관공’이라는 장수의 풍모를 빌려 의원을 묘사한 것은, 화자가 처한 질병의 고통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암시한다.
- ② 의원이 화자에게 고향과 인물에 대해 묻는 과정은, 낯선 타인에 대한 화자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고립감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③ 화자가 의원을 ‘아버지와 동무’라고 부르는 것은, 신분적 차이를 극복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④ 의원의 수염을 ‘관공’에 비유한 것은 초기에 느낀 대상의 거리감을 나타내며, 이것이 ‘부모 형제의 손길’로 변화하는 것은 질병의 완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 ⑤ 의원이 언급한 ‘아무개 씨’라는 구체적 인물은, 타향에 홀로 남겨졌던 화자가 고향이라는 공동체와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얻게 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용악의 「하나씩의 별」은 유랑의 길에서 돌아오는 민중들의 남루한 처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화물 열차 지붕이라는 위태로운 공간에서 ‘제각기’ 별을 보는 행위는 공동체의 비극적 유랑을 상징한다. 특히 ‘나라에 기쁜 일’이 생겼음에도 ‘울지를 못하는’ 화자의 모습은, 광복이라는 환희 뒤에 가려진 민중들의 고단한 현실과 복잡한 내면을 드러낸다.

- ① ‘두만강 저쪽’이나 ‘자무스’에서 온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국외로 떠돌아야 했던 유랑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보여 준다.
- ②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는 묘사는, 화물 열차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 위에 노출된 민중들의 열악한 생존 조건을 암시한다.
- ③ ‘내사 서울이 그리워 /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다른 유랑민들과 달리 서울로 향하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다.
- ④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유랑민들이 겪는 보편적 고통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⑤ ‘하나씩의 별’을 ‘한결같이 쳐다보는’ 행위는, 흩어졌던 민족 구성원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완벽한 결속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은 화자가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를,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
- ③ ㉠은 화자의 질병을 완치하려는 의원의 냉철한 직업의식을, ㉡은 화자의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투영한다.
- ④ ㉠은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정서적 충만감을, ㉡은 고향을 떠난 유랑민들이 공유하는 고립된 처지와 비애의 정서를 투영한다.
- ⑤ ㉠은 타향에서 고독을 느끼는 화자에게 고향의 유대감을 환기하며, ㉡은 시대적 시련을 극복하고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초월적 의지를 상징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번 세트]

(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단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렸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

나무는 덕(德)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分數)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우랴,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不滿足)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죽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죽하다.

나무는 고독(孤獨)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보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작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울고 돌 우는 동지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옷을 뽀 말미 없으나, 이심전심(以心傳心)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잡이 친구다. 자기 마음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대고 어떤 때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중략)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길래,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있다. 그리고 온갖 나뭇잎이 욕은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보고 흔히는 자기소용(自己所用) 닿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어가고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 도리어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간 재목이 혹 자길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 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현인이다.

- 이양하, 「나무」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인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자연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나)는 냉소적인 어조로 인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상을 인격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설정하여, 화자나 글쓴이가 부여한 상징적 의미와 정서적 지향을 투영하고 있다.
- ④ (가)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나)는 대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⑤ (가)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이 처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달'의 의리 있고 다정한 모습을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향토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국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지에 뿌리박고 살아온 민중들의 삶의 흔적을 환기하며, 국토를 공동체의 소중한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 자연의 순환과 현실의 상황 사이의 괴리를 자각하며 느끼는 비극적 위기감을 보여준다.
- ④ ㉣: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나무의 덕성을 나타낸다.
- ⑤ ㉤: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를 나무가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수용하여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연은 인간에게 경외감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처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가)에서 자연은 상실된 국토에 대한 애착을 환기하며 화자를 걱정적 토로로 이끄는 반면, (나)에서 자연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대비되는 도덕적 완결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 ① (가)의 '푸른 하늘 푸른 들'과 '가르마 같은 논길'은 생명력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화자로 하여금 '남의 땅'이라는 현실을 환기하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 ② (나)의 나무가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는 것은, 인간의 가변적인 욕망과 대비되는 나무의 안분지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③ (가)에서 화자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은 국토 상실로 인한 방향 상실감을, (나)에서 나무가 '천명을 다한 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의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 ④ (가)의 '나비와 제비'는 화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동반자이며, (나)의 '달과 바람'은 나무가 자신의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 없이 갈구하는 대상이다.
- ⑤ (가)의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인식은 현실에 대한 비극적 절망을, (나)의 '고독의 철인'이라는 표현은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

\* 확인 사항

- XBS N제: 수특 - 현대시편(검토용)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 이어서, 「빠른 정답」이 제시되오니, 채점 후에 해설을 참고해 주세요.

